



## 더위야 물렀거라~

여수엑스포해양공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는 카약 체험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이 6일 직접 노를 저어 카약을 이동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

**“배 내놓습니다” 벌써 1000척****전남도 감척사업 신청자 급증…목표량 8배 넘어**

전남도가 추진중인 어선 감척사업에 1000 척이 넘는 어선이 신청, 수산업계의 불황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올해 감척 목표 물량 128척의 8배 이상이다. 그러나 김척신청이 허가가 나간 건수는 7980건, 2941건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전남도는 올해 이 규정을 풀어 정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전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일선 시군을 통해 어선 감척 신청을 받은 결과 연안복합 801척, 연안자망 223척, 연안통발 27척 등 모두 1070척이 신청했다.

지난해는 신청 대상 업종을 허가점수(許可定數)를 초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 단 한 척의 신청도 없었다.

연안 어선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안

복합과 연안자망은 허가된 건수가 오히려 정수보다 적다.

연안복합과 연안자망의 허가점수는 8341건과 2977건이지만 실제 허가가 나간 건수는 7980건, 2941건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감안, 전남도는 올해 이 규정을 풀어 정수 초과여부에 관계없이 전 업종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조만간 수산조정위원회

를 열어 감척 어선 수, 대상 업종 등을 최종 결정,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다.

소요 사업비는 52억원이다. 감척 보상금이 시중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감척 희망자가 많은 것은 그만큼 수산업이 힘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순천서 전국 첫 벼 2모작****해룡면 신대리 2번째 모내기**

순천시에서 전국 처음으로 1년에 2차례 수확하는 벼 2모작 모내기가 이뤄졌다.

6일 순천 해룡면 신대리에서 농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처음으로 2모작 모내기를 했다.

이날 모내기를 한 신대리에서는 지난 4월 20일 모내기 뒤 지난달 31일 수확을 마쳐 도내에서는 맨 먼저 모내기 수확이 이뤄졌다. 오는 10월 말

**다문화 가정에 책 배달****고흥군 ‘책 두루’ 사업**

문화 가정으로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 가정당 최대 대출 권수는 5권으로 대출 기간은 15일이며 도서 대출 반납에 소요되는 택배비는 전액 도서관에서 부담한다.

고흥군은 소설 등 문학류를 포함해 육아·가정·취미·건강 등 폭넓은 분야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주각중기자 gjju@kwangju.co.kr

**국보 ‘여수 진남관’ 전면 보수****기둥 부식 등 변형 심각****2016년까지 150억 투입**

여수에 있는 국보 제304호 ‘진남관’(사진)의 구조적 변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내 동문로에 위치한 국보 진남관이 하부기둥 뿐만 아니라 부식 등에 따른 지지구조 불안정 등 구조적 변형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부터 전면 보수작업에 들어간다.

보수작업은 건물을 모두 해체 후 복원하는 방식으로, 국비 105억 원과 총 150억 원을 들여 오는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벌인다.

이번 보수는 문화재청이 진남관에 대한 안전여부와 보존상태 등에 대해 종합점검한 결과 보수를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점검결과 주 초석 두께와 면적이 부족하고 균열·박리 등이 발생, 주 초석의 구조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둥 침하와 기울어짐 등의 현상으로 연결되고 기둥은 균열·부식, 주 초석 접지점과 이탈 현상 등도 발생했다. 문화재청은 전체적으로 건물의 종축과 횡축이 기울어지면서 건물전체의 구조적 변형이 진행되고 있는 것

으로 결론을 내렸다.

진남관은 1599년(선조32) 삼도수군통제사 이시언이 세운 전라좌수영 객사로 1716년 소실됐으나 1718년(숙종44)에 재건됐다.

68개 기둥에 800㎡ 규모 75간의 개방형 마루 구조의 건물로, 현존하는 지방관아 건축물로는 최대 규모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승리로 이끈 수군 중심기지 일부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허수아비 만들며 온가족 하하~호호~****道농업박물관 24일 경연대회****초등생 동반가족 선착순 모집**

전남도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오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박물관 애와전시장에서 ‘2013 허수아비 만들기 경연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참가 가족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단위이며 60여 가족 240명을 선착순 접수하고 2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허수아비 만들기에 필요한 각종 도구와 벽짚, 새끼풀, 목재 등은 농업박물관에서 지급하지만 허수아비 꾸밈용 옷과 기타 장식품 등을 참가 가족이 준비해야 한다.

농업박물관은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등 총 7명의 입상자를 선정해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출품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출품된 모든 허수아비마다 작품명과 출품자 성명 등을 기록한 명



지난해 허수아비 경연대회에 참가한 어린이와 출품작.

파를 부착해 애와 친환경농업관찰학습장 주변에 10월까지 전시해 관람객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나 인터넷 이메일 등을 통해 참가자 성명과 가족 수를

알려주면 되고 참가비는 가족당 1만 원이다. 문의는 전남도농업박물관 전화(061-462-2796~9)나 홈페이지 (<http://www.jam.go.kr>)로 하면 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자랑스런 장성군민 찾습니다”****16일부터 후보자 추천**

장성군이 각계 분야에서 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는다.

6일 장성군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제36회 장성군민의 상’ 후보자 추천을 받아 ▲교육·문화·예술 부문 ▲사회복지 및 체육부문 ▲향

을 거뒀거나 창의와 개발정신으로 유무형의 국가적 보존가치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자 등이다.

후보자 추천은 오는 30일까지 각 기관·단체의 장·읍·면장, 개인이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세대주 20인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다.

군민의 상은 오는 10월 1일(예정)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제36회 장성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